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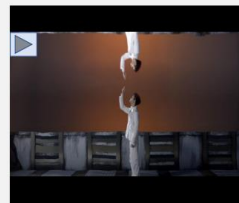
목차

1. 기획/제작 업무는 무엇인가?
2. 영화 '릴리 슈슈의 모든 것'과 에테르 그리고 NCT
3. f(x)의 Red Light (B버전) 비주얼 아트 레퍼런스와 그 의미
4. 걸그룹의 한계와 방향성: 여자친구
5. 태연 What Do I Call You 뮤비 레퍼런스와 단상
6. KOCCA 200917 포럼: 언택트 시대, 뮤직 그라운드와의 양극화
7. NCT 2020 – RESONANCE의 의미
8. 케이팝의 오리엔탈리즘 유행은 계속 진행중 (아이들-화)
9. 에스파의 성공적인 '블랙 맘바' 뮤비 1억뷰
10. 새로운 레전드 뮤직비디오 – 유노윤호의 Thank U (느와르 영화의 뮤비화)

2. 영화 '릴리 슈슈의 모든 것'과 에테르 그리고 NCT

내 나이 15살, 리브레타와 하나와 앨리스를 만든 이와이 순지의 영화라고 해서 골라 봤던 영화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15살의 소녀가 이해하며 보기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또한 공감력이 높았던 내가 이 주인공들의 고통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다 보고 나서는 '다시는 이 영화를 보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었다.

그런 내가 십 여년이 지난 후, 이를 다시 본 데에 가장 큰 이유는 '에테르' 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15살에서 만 훗날 2020년이 될 때까지 다시는 보지 못할 단어로 생각했는데 엔시티 2020에서 나오는 Ether라는 티저 팔름을 보고 나니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온 '에테르'를 떠올렸다.



에테르에 대한 정의는 사실 영화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지는 않는다. 굳이 표현하자면 순수함, 예술적 공명, 순수한 에너지, 이상의 극치.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릴리 슈슈의 음악을 통해 공감하고 코뮈니케이션을 한다. 릴리가 있는 세상은 에테르가 있는 세상, 현실은 에테르가 없는 세상이다. 이런 해 주안공 하스미는 고통을 느끼며 가상 세계에 의지를 하며 현실을 살아간다.

음악을 통해 하나의 꿈을 이뤄가는 엔시티에게도 이런 에테르의 공명은 중요한 게 이 영화에서의 에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다.

이 작품을 자신이 죽음때 유적으로 남기고 싶다는 이와이 감독의 인터뷰를 어디서 볼 정말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 보니 그말을 이해할 것도 같다. 자신이 그리던 이상을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에테르 이니까.

6. KOCCA 200917 포럼: 언택트 시대, 뮤직 그라운드의 양극화

2020년 9월 17일 KOCCA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인디밴드와 메인스트림의 각 대표가 나와 코로나 시대에 공연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하였다. 보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자본으로 인한 양극 현상이 두드러져서 인디밴드는 어려기가 정말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인스트림의 대표 SM의 조동준 센터장은 언택트 공연 Beyond Live를 통해 AR기능의 성공적인 사용과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다는 데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언더그라운드의 대표로 봉가봉가레코드의 고건혁 대표는 자본의 유무로 플러기가 쉬운 뮤직 그라운드에서의 언택트 시대에 맞선 과제는 생각보다 더욱 어려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한숨은 무겁게만 느껴졌다.

3. f(x)의 Red Light (B버전) 비주얼 아트 레퍼런스와 그 의미



현 빅히트 뉴 레이블 만화진 CEO님의 수작 중 하나인 애프터엑스의 레드 라이트 B버전. 레드라이트라는 앨범을 통해 이 작품 하나에 여러 개의 메타포와 레퍼런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 보았고 (물론 나의 시각 안에서). 음악이라는 한 장르를 빛내기 위해 사진과 영상, 의상 등의 여러 콘텐츠를 이용하여 한 앨범을 더욱 빛낼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물론 여기에 음악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는 항상 깔려야 한다.)

1. 아라키 노부요시 - 상처, 고통의 시각화: 헤어밴드, 안대 및 무릎 보호대



영화의 머리 봉대 같은 헤어밴드와, 설리의 무릎 보호대, 멤버들의 안대는 내면의 상처 및 그들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의미



레퍼런스가 자주 쓰인다

4. 걸그룹의 한계와 방향성: 여자친구

걸그룹은 보이그룹보다 수명이 짧은 편이다. 대중성을 잡지 않으면 보이그룹에 비해 코어 팬덤이 적어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완전한 (여자)아이들이 없다면 무조건 대중성을 노려야 하는게 맞다. (대중성이 높아지면 코어팬덤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1. 시작

여자친구는 소스뮤직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그룹이다. 여자친구는 이가용밴드와 일명 학교3부작으로 데뷔부터 엄청난 대중성을 이끌고 인지도를 높였다.

그렇게 [유리구슬 - 오늘부터 우리는 - 시간을 달려서]로 연속 히트를 치고 대중적으로 여자친구만의 색깔을 굳혔던 그들은 그 다음 앨범으로 바로 소녀를 벗어던져 Fingertip으로 도약을 시도하며 소녀에서 성숙으로 급하게 변화를 탔고, (이론 같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중과 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2. 중간

빅히트가 소스뮤직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나 마찬가지로 형태가 되고, 빅히트 아래에서 여자친구는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탈바꿈했다. 대중성과 코어팬덤 (특히 대부분이 남자)을 나뉘어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본색유일하고 애견 색깔과 전혀 다른 음악, 음용해 보이는 무표정의 여자친구는 말그대로 남자 덕후들의 '여자친구'가 더이상 아니었다.

